

실속 재테크

은행 '우대금리' 100% 활용법

0.1%P도 놓치지 마라

은행에서 예금 이자를 더 받는 방법은 없을까.

저금리시대, 은행 예금 이자의 매력이 떨어진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은행별·상품별로 다양한 우대금리제도를 갖고 있어 잘 살펴보면 최대 1.0%포인트에 가까운 금리우대 혜택을 볼 수 있다.

우대금리를 최대한 받으려면 자동이체 통장으로 지정하고 신용카드 결제액이 많아야 하는 것은 기본이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주거용 주택이나 아니냐. 일단 장기간 주거용고객이란 '필수조건'을 충족시킨 뒤 거래 은행에 급여통장을 만들고, 거래실적을 늘리고, 신용카드 사용액을 불리는 '충분조건'을 달성하면 우대금리 혜택을 120% 활용할 수 있다.

광주은행은 모든 예금을 인터넷으로 가입할 경우 정해진 금리에 추가로 0.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해 준다. '행복드림예금'의 경우 예금 거래실적에 따라 0.3%포인트, 신용카드 사용액에 따라 0.2%포인트 등 최대 0.5%포인트의 우대금리 혜택을 주고 있다.

저탄소·녹색운동을 후원하기 위해 출시한 '그린스타트예금'은 경차나 친환경 자동차를 보유한 고객에게 0.1%포인트, 신용카드인 탄소그린카드 가입 이용고객에 0.1%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또 3천만원 이상 가입한 개인과 법인에게는 각각 0.1%포인트와 0.2%포인트의 금리우대를 하고 있다.

국민은행의 경우 1년제 슈퍼정

은행별 우대금리 사례

은행	상품	우대금리 혜택
광주	그린스타트예금	탄소그린카드가입, 경차보유고객, 3천만원이상 가입고객 각 0.1%p, 3천만원이상 법인고객 0.2%p
	행복드림예금	신용카드 거래실적 0.2%p, 예금거래실적 0.2%p
국민	가족사랑 자유적금	가족이 3명이상 0.3%p, 1천만원이상 가입고객 0.2%p, 자원이체시 0.1%p
	우리 키워정기예금	가입금액·거래실적 따라 최고 0.6%p
신한	민트적금	매달 적금액 25만원 이상 0.1%p, 평잔액 100만원 이상 0.3%p

카드결제·자동이체 지정은 기본 光銀 온라인 가입하면 0.2%p '담'

기예금 기본금리가 현재 2.3%에 불과하다. 하지만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본부승인 우대금리를 적용해 최고 3.35%까지 받을 수 있다.

이밖에 '가족사랑 자유적금'은 3년제 기본금리가 3%지만 최고 3.8%까지 받을 수 있다. 가족이 3명 이면 0.3%포인트, 가입시 설정한 목표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0.2%포인트, 카드결제액이 적금액보다 많으면 0.2%포인트, 자동이체 시 0.1%포인트가 적용돼 최고 0.8%포인트의 우대금리가 가능하다.

우리은행 '키워정기예금'은 거래 실적, 가입금액, 신용카드 결제액 등에 따라 최고 0.6%포인트 우대금리가 가능하다. 1년제 기본금리가 2.95%이기 때문에 최고 3.55%까지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신한은행 '민트적금'은 매달 저축액이 25만원 이상이면 0.1%포인트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평균잔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0.3%포인트가 추가로 붙는다. 인터넷으로 가입하는 'U드림 정기예금'은 1년제 금리가 3.18%지만 우대금리가 포함되면 최고 금리 3.48%까지 받을 수 있다.

특목 뒤는 조건의 우대금리 혜택도 있다.

하나은행 'S라인적금'은 살도 빠고 금리도 더 받는 일석이조 상품이다. 1년 이내 체중을 5% 이상 감량하면 0.5%포인트를 추가로 주는 등 최고 0.9%포인트 우대금리가 가능하다.

'아가랑적금'도 임신부가 가입하면 0.3%포인트 우대금리가 보장된다. 자녀 출산 시 0.2%포인트 등을 포함해 최고 1.1%포인트 우대금리까지 가능하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닛케이지수 1만선 붕괴... 한국 증시도 13.27P!

닛케이평균주가지수 1만선이 붕괴한 16일 일본 도쿄시내 증권가 표정. 이날 코스피지수는 일본, 미국 등 해외증시 급락의 영향으로 전날보다 13.27포인트(0.94%) 내린 1,399.15로 거래를 마쳤다.

광주·전남 5월중 어음부도율 0.38%

넉달만에 하락세로

광주·전남의 어음 부도율이 넉 달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16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5월 중 광주·전남지역 어음부도율은 0.38%로 전달(1.31%)보다 0.93%,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23% 하락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1.52%에서 올 1월 0.44%로 크게 하락하고 나서 2월 0.60%, 3월 0.93%, 4월 1.31% 등

로 석 달째 크게 오르다 넉 달 만에 다시 하락한 것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지역(0.56%)이 지난 3월 부도 처리된 증권 건설업체의 부도금액 감소로 말미암아 1.68% 하락했고 전남지역(0.11%)도 전달보다 0.07% 하락했다.

신규 부도업체(당좌거래정지 업체) 수는 9개로 전달의 13개에 비해 4개 줄었고 신설법인 수는 262개로 전달의 343개에 비해 81개가 감소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고수익' 지수연동예금 10개 중 4개 수익율 '0'

은행들이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내세우며 지수연동예금(ELD)을 앞다퉀 파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에 만기가 도래한 ELD 상품 10개 중 4개는 수익률이 0%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수연동예금은 종합주가지수나 특정 주식의 주가 혹은 금리, 환율 등에 연동하는 투자상품으로 원금이 보장되면서도 지수가 일정 구간 내에서 움직이면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 국내 4대 은행이 지난해 판매한 ELD 가운데 이달 15일까지 만기가 된 43개 상품을 분석한 결과 수익률이 0%인 상품은 18개로 집계됐다.

국민은행의 경우 만기도래한 상품 9개 중 4개, 우리은행은 11개 중 4개, 신한은행은 12개 중 6개, 하나은행은 11개 중 4개 상품이 수익률 '제로'였다.

올해 상반기에 만기가 된 ELD는 대부분 1년 전인 지난해 상반기에 판매된 것들로, 당시 정기예금 금리인 연 5%대보다 못한 수익률을 낸 ELD도 수두룩했다. 이에 따라 0~5% 미만의 수익률을 거둔 상품은 총 27개로, 전체 63%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코스피지수가 국제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큰 폭으로 하락했기 때문이다. ELD는 대부분 만기 때의 지수가 가입 때 기준지수보다 낮으면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반면 주가가 일정 범위에서 하락하면 높은 수익이 발생하도록 설계된 ELD 상품은 비교적 높은 수익을 냈다. 신한은행의 'PGA 8-2 하락형' 등 지수가 하락하면 수익을 내는 하락형 상품 5개의 수익률은 8~10%였다. /연합뉴스

"코스피 1,600 넘으면 펀드런 우려"

〈대량 환매〉

현대증권 조정 가능성 제기

코스피지수가 1,600선을 넘으면 펀드의 대량 환매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울러 지난달 사모펀드가 보통 때보다 7배가 넘는 6천억원이나 상환된 것은 향후 증시의 조정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대증권 문수현 연구원은 16일 이수분석 보고서에서 국내 주식형 펀드는 코스피지수가 1,400선을 통과하면서 국내 증시 탄력둔화, 해외주식형 펀드 매력 증가, 주식 직접투자 증가, 순익확정 욕구 증가 등으로 환매가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문 연구원은 1,600선 이전까지는

매물대가 얹어서 환매에 대한 우려가 크지 않겠지만 1,600선 이상에서는 주식형 펀드의 설정 잔고가 33조원 가량 쌓여 있어 코스피지수가 1,600선 이상으로 상승할 때 펀드 대량 환매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증권사들의 올해 지수 상단에 대한 컨센서스가 1,500~1,700선인 만큼 연말 전 2차매물대 통과에 따른 대량환매가 나올까 우려된다"며 "국내 주식형 펀드 환매 물량은 증시 수급상 약제로 작용할 수 있고, 환매가 과다하면 펀드운용에 차질을 겪기 기존 투자자들의 투자 손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수대마다 나올 수 있는 환매물량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국제보청기

1. 배우실 것입니다

2. 상담합니다

3. 보청기를 드립니다

본점 (063) 227-9940

충정점 (063) 227-9970

순천점 (061) 752-9940

목포점 (061) 262-9200

익산점 (063) 851-2422

www.kib.com

산행안내

산행 안내

산행 일정

산행 준비

산행 주의사항

부동산 전지신익

크메아 오토캠핑

선별비 30% 할인 행사

6월 18일까지

(신설점별 무료체험장 운영)

문의: 491-1147